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 김관수***

요 약

본 연구는 계획된 소비습관에 따른 저축률의 차이 및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의 저축률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2012년 4월11일부터 6월2일까지 대구지역 만 15세~18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습관 유형과 저축률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소비습관에 따라 저축률에 차이가 있고, 소비습관 유형이 계획적일 수록 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 했다. 소비습관 유형의 설문 항목을 중심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소비습관이 계획적인 집단과 무계획적인 집단으로 구분했다. 무계획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기입장을 통해 소비습관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경영경제부분이 강조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 지역 경영경제관련 인사의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사회 교과에서의 경제부분 강조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받기 전과 후의 저축률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소년들의 소비습관에 따라 저축률은 차이가 크고,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 및 저축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청소년 소비자, 소비습관, 계획적인 소비, 소비습관 교육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제1저자) (E-mail: jj2083@knu.ac.kr)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E-mail: pskim@knu.ac.kr)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접수일자: 2013-01-30 최종수정일자: 2013-01-30 게재확정일자: 2013-02-19

I.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80년대 중반에는 15%, 88년도에는 25.2%까지 치솟으면서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은 2.8%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 되었으며, 이는 덴마크,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순위라고 한다. 2012년의 저축률 전망치도 2.8%로 3.1%인 일본에도 추월당할 것이라고 한다(매일경제신문, 2011).

개인의 저축은 은행에게 매우 중요하다. 은행은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을 포함한 여러 경제 주체자들에게 빌려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만약 저축이 감소한다면, 은행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실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다시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누적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저축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저축은 '저축 = 소득 - 소비'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므로 소비를 줄일수록 저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소득을 얻고 충분히 만족할 만큼 소비를 한 뒤 남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소득에서 먼저 일정금액을 저축 한 뒤 소비를 할 때 저축한 금액은 다르듯, 소비습관에 따라 저축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재정상담가로 유명한 Larry Burkett은 바람직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 주어진 소득을 잘 지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성표, 1992).

청소년 소비자들은 소비 경험이 미숙하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이라는 특징이 결합되어 과소비,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행동을 보여 일반 성인 소비자에게 비해 불규칙적인 소비행동을 가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서은숙 과 장윤옥, 2008; 조아미 와 윤철경, 2005 ; 홍은실, 2005).

이기춘(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소비자들은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몇 년이 지나면 사회에 나가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게 된다.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개인의 재정상태에 있어서 주어진 돈을 제대로 잘 소비하여 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는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확립하여, 기존의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지양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의 소비습관은 성인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소비습관형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홍은실 2006).

이처럼 청소년기의 소비자들에게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석봉화, 1997; 이은정, 1999; 조영희, 1996)이나 과시소비, 현시적 소비(편세린, 1997)등 부적절한 소비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안정적인 소비습관(=저축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인 소비습관에서의 저축률과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습관의 저축률을 조사하여 계획적인 소비습관과 저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지식의 유무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서은숙과 장윤옥, 2008) 소비자지식에 대한 교육이 소비습관을 변화시켜 저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계획적인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소비자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인간형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의 소비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즉, 청소년기의 소비에 관련된 경험들은 성인기 소비행동의 유형을 결정하고,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기초적인 소비관은 성인기의 지속적인 소비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이기춘, 1985).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소비습관 교육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저축률 상승효과를 증명하려 한다.

2.2. 소비습관

계획적 소비란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구매방법 및 절차를 미리 생각하여 정하는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다(홍은실, 2005) 홍은실 등(2001a, 2001b)은 계

획적인 소비행동으로 인식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회계기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지출을 배분하며 계획에 맞게 예산생활과 지출기록, 저축을 하는지의 여부로 금전관리행동의 합리성을 측정하였다. Grable과 Joo(2001)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구매 전 구매목록 작성, 저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 계획적인 소비행동을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행력을 포함하는 소비습관으로 정의한다.

이기춘(2000)은 청소년소비자가 청소년기의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런 갈등을 과시소비나 모방소비, 충동구매, 과소비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소비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과시소비란 효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혜인과 이승신, 2003). 백경미(1995)는 과시소비를 상징적으로 상품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행동, 타인이 인정하는 상품이나 유명상표 및 외제품을 선호하는 행동, 고가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Piron(1991)은 충동구매를 정의했다. 충동구매란 비계획적 구매이며 비계획적 구매와 자극노출의 결과이며 구매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현장성이란 구매의사결정이 진행되고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뜻하고 정의되는데 그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충동구매의 현장성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광고, 판촉 기법과 일반화된 셀프 서비스 판매, 신용카드의 보편화, 경제수준 상승,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충동구매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 청소년소비자는 자아개념의 미 확립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상품의 가치보다 정신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충동구매를 하기 쉽다(이기춘, 200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소비자의 무계획적인 소비습관으로 과시소비와 충동소비에 따른 과소비를 바탕으로 구성된 항목을 통해 평가한다.

2.3. 소비습관에 대한 경영, 경제교육

소비자는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습득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루어진다(정미정 과 이연숙, 2007). 소비자지식은 청소년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서은숙과 장윤옥, 2008). 소비자지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수준이 비교적 낮고 개인의 소비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홍은실, 2006; 김용자, 2004; 석봉화, 1997)로 미루어볼 때, 소비자지식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 경영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직업교육의 경영활동에 대한 영향(권순백, 2012), 대학생 창업교육의 중요성(정두식 2012), 대학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길하나 등 2011; 김상수 2010) 대학교육의 품질에 대한 연구(정인호 와 이은진, 2012) 다양한 연구가 경영경제관련 교육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지식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소비자교육을 통해 정립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소비습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소비습관이 계획적인 집단과 무계획적인 집단으로 구분했다. 소비습관의 유형이 무계획적이라 구분된 집단을 대상으로 용돈기입장을 지급하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계획적인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따로 실시했다. 또한 용돈기입장의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먼저 모두에게 용돈기입장을 나누어 주고, 기초 회계지식만을 이용한 차변, 대변, 전체 용돈의 규모 및 사용용도 항목의 설정, 그리고 잉여금액의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용돈기입장을 항상 기록하게 하고 용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를 포함해서 학교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전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 및 경제부분이 강조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 지역 경영경제관련 인사의 전문가 초청 특강 그리고 사회교과에서의 경영, 경제부분 강조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실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경영, 경제 관련교과목이 사회에서 일부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서 등한시 될 수 있는 경제,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무계획적 소비습관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제생활습관 및 경제개념 관련 교육전과 후의 저축률 변화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3.1.1. 연구 가설

- H1: 청소년의 소비습관이 계획적일 경우 저축률이 높다.
H2: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 후 청소년의 저축률에 차이가 있다.

3.1.2. 변수정의

3.1.2.1. 소비습관

이은희와 남수정(2004)에서는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때 주된 결정이 어디에서 형성되는가를 지배성으로 정의하고, 또한 이를 내부지배성과 외부지배성으로 나누었다. 내부지배성은 자신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고 외부지배성은 시장환경 등의외부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이다. 조아미와 윤철경(2005)의 연구에서 소비습관을 계획, 반계획, 무계획으로 구분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소비습관과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습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부지배성관련 7문항, 외부지배성관련 6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무계획적', '계획적'집단으로 소비습관을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소비습관을 저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3.1.2.2. 저축률

금융감독원의 '즐거운 금융 교실(2008)'에 의하면 저축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현재 쓰지 않고 남기는 부분을 말한다. 박은태의 '경제학사전(2011)'에서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전만큼 소비할 수 없게 된 상태인 강제저축(forces saving)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을 외부요인으로 인한 저축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자발적 저축이라 하며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을 뜻한다. 저축률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한달 받는 용돈에서 한달 동안의 저축금액에 대해 설문했다. 한달 동안의 저축금액을 한달 받는 용돈으로 나눈 값을 저축률이라 정의한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소비자이다. 청소년 소비자란 연령이나 생활주기를 중심으로 분류된 소비자유형의 하나로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의 청소년기에 속하는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이다.(홍은실, 2006).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소비자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 4월 11일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D고등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했다. 예비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한 뒤 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 행태에 따라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그 이후에 소비습관이 계획적인 청소년 집단과 무계획적인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자발적인 자율성에 의해 습관을 길러야 한다. 소비습관이 무계획적인 청소년 집단 중에서 실험에 참가 의사를 밝힌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7일에 계획적인 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계획적인 소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서 약 한달 동안 용돈기입장을 기록하게 한 뒤 저축률 변화를 비교했다. 2012년 6월 12일 용돈기입장을 기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저축률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3.3. 분석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했다. 수집된 여러 변수들 사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하였고,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소비습관교육과 같은 변수들은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알파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변수는 제거했다.

설문에 사용한 질문들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들이 믿을 만 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소비습관에 따라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소비습관 유형에 따라 계획적인 소비습관과 무계획적인 소비습관으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했다. 소비습관이 무계획적인 집단의 자료를 토대로 실험에 참가 의사를 밝힌 48명을 대상으로 교육전과 후의 저축률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시행 했다.

IV.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논문들을 참고하여 연구변수를 도출했다.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회수된 550부의 설문지 중에서 총 525개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사용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48%, 여학생이 50.1%로 나타났으며, 1학년이 19%, 2학년이 45.1%, 3학년이 33.7%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정보들의 기본적인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빈도분석 결과

항목	구분	명(%)	계
성별	남학생	252(48)	525명(100%)
	여학생	263(50.1)	
	결측치	10(1.9)	
학년	1학년	100(19.0)	525명(100%)
	2학년	237(45.1)	
	3학년	177(33.7)	
	결측치	11(2.2)	
평소 저축 유무 (문항 4번)	예	221(42.1)	525명(100%)
	아니오	300(57.1)	
	결측치	4(8)	
용돈 보관 장소 (문항 6번)	통장	160(30.5)	525명(100%)
	저금통	45(8.6)	
	지갑에 넣어둔다.	73(13.9)	
	부모님께 맡긴다.	8(1.5)	
	기타	2(0.4)	
	결측치	237(45.1)	
용돈기입장기록유무	예	53(10.1)	525명(100%)
	아니오	472(89.9)	
소비습관교육유무	예	231(44.0)	525명(100%)
	아니오	294(56.0)	
소비습관교육영향	긍정적	399(76)	525명(100%)
	부정적	126(24)	

4.2.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습관 유형과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을 규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각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신뢰성 분석 시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정충영, 최이규, 2003). 요인분석에 앞서 변수간 KMO측정치와 Batlett 구형성검증치를 통하여 자료가 어느 정도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해석했다. <표 2>에서와 같이 0.758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택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 가를 점검하는 방법인 Batlett 구형성 검증치는 1450.536이며 P값이 0.000으로 요인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성 측정은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했다.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제거할문항 25번은 제거했다.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α값 이 0.664, 0.772로 나타났으므로 변인 간 일치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연구를 진행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구분	측정 항목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획적 소비습관	무계획적 소비습관	공통성	고유값	
소비 습관	문 항13	.717		.517	3.092	.772
	문 항14	.674		.465		
	문 항15	.701		.507		
	문 항16	.688		.485		
	문 항17	.621		.396		
	문 항23	.579		.350		
	문 항24	.497		.276		
	문 항18		.635	.446	2.311	.664
	문 항19		.754	.573		
	문 항20		.550	.312		
	문 항21		.544	.359		
	문 항22		.594	.356		
	문 항26		.541	.360		
분산설명(%)		23.78%	17.77%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측도				.75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1450.536		
		자유도		78		
		유의확률		.000		

4.3. 가설검증

H1: 청소년의 소비습관이 계획적일 경우 저축률이 높다.

소비습관 유형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소비습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4점 척도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변수 총 13개를 합산하고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이는 계획적인 소비습관에 관련된 변수의 값이 크거나 무계획적 소비습관에 관련된 변수의 값이 작을수록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확률(p)는 0.000으로 $p < 0.05$ 로 나타났고, t값이 7.327로 기준값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습관 유형이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β 값이 .375로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가질수록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는 청소년은 저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1은 채택된다. 소비습관 유형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소비습관 유형(계획적/무계획적)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소비습관	저축률	.01	.305	7.327	.000	R=0.305 R ² =0.093 수정된R ² =0.091 p=0.000

H2: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 후 청소년의 저축률에 차이가 있다.

소비습관 유형이 무계획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 전과 후의 저축률을 살펴보기 위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먼저 집단을 구분했다. 분류된 군집중 무계획적인 설문항목에 값이 큰 청소년 309명 중에서 실험에 참가 의사를 밝힌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했다. K-means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소비습관과 경영경제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표 4>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분류

설문분류	설문항목	군집분류		F값	P-value
		군집 1	군집 2		
		(n=309)	(n=216)		
계획적 소비 습관	문제 13번	1.92	2.93	284.273	.000
	문제 14번	2.04	2.81	162.324	.000
	문제 15번	2.19	3.10	234.693	.000
	문제 16번	2.45	3.10	113.799	.000
	문제 17번	2.36	2.93	85.737	.000
	문제 23번	2.88	3.33	75.787	.000
	문제 24번	2.14	2.79	134.915	.000
무 계획적 소비 습관	문제 18번	2.57	2.13	57.943	.000
	문제 19번	2.51	2.13	42.565	.000
	문제 20번	2.83	2.57	18.651	.000
	문제 22번	3.01	2.86	5.257	.022
	문제 26번	3.01	2.46	80.663	.000

소비습관이 무계획적이라고 분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소비습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용돈기입장을 작성 하도록 했다. 약 한달 간 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전과 후의 저축률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했다. 통계적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확률(p)는 0.000으로 $p < 0.05$ 로 나타났고, t값도 8.116으로 기준 값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습관이 무계획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달 간 용돈기입장을 기록 하도록 한 결과 저축률에 변화가 있고, 교육하기전의 저축률 보다 교육한 후의 저축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2는 채택된다. 소비습관 교육 후 무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가진 학생들의 저축률 차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소비습관 교육 후 소비습관이 무계획적인 학생들의 저축률 차이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육전 저축률	.0290	.04728	8.116	.000
교육후 저축률	.3390	.25017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도

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을 파악하고, 저축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무계획적 소비습관을 갖는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하도록 교육을 시행한 뒤 청소년 소비습관 개선의 효과 및 저축률 상승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소비습관이 계획적일 경우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습관 및 경제 및 소비개념에 대한 교육 후 청소년의 저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습관이 저축률과 매우 관련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인 소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기입장 작성을 통해서 예산생활과 지출기록을 통한 계획적인 소비습관에 대한 교육이 저축률에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소비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기도록 용돈기입장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거나, 교과수업에서 계획적인 소비습관 및 경제, 경영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청소년의 소비습관 개선과 저축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자본주의 경제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본 연구의 설문이 대구지역의 청소년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을 더욱 확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소비습관 뿐 아니라 일반 성인의 소비습관이나 계획된 소비에 대한 경영, 경제교육과 저축률에 관계된 연구도 앞으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순백. 2012. 직장의 윤리경영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윤리학의 체계적 교과구성. *경영교육연구*. 27(6): 243-262.
- 길하나, 심성민, 장홍섭. 2011. 상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서비스품질 및 참여동기가 교육만족과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6(4): 581-600.
- 김상수. 2010.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경영교육 방법에 관한 사례 연구. *경영교육연구*. 60: 283-309.
- 김용자. 2004. 소년 건전소비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경제교육연구*. 11(1): 221-250.
- 김혜인, 이승신. 2003.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46-156.
- 금융감독원. 2008. *즐거운 금융교실*. 서울
- 백경미. 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숙, 장윤옥. 2008.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대한 태도 및 소비가치가 합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41-257.
- 석봉화. 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 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 2000.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서울
- 이은정. 1999.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에 관한 연구: 준거집단 영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남수정. 2004.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소비와 용돈관리 실태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57-170
- 정미정, 이연숙. 2007.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행태 및 관련변인. *한국가정화교육학회지*. 19(3): 1-17
- 정두식. 2012. 대학생의 창업교육 선호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7(6): 373-394.
- 정인호., 이은진. 2012. 대학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성과요인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MBNQA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7(4): 207-239.
- 조성표. 1992. *돈 걱정 없는 가정*. 기독교 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대구
- 조아미, 윤철경. 2005.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와 문제, 그리고 시사점. *여성가족생활연구*. (9): 163-179.
- 편세린. 1997. *청소년의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 양남희. 2001. 여고생의 가치지향성과 금전사용양식의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3(2): 37-46.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 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 사용행동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홍은실. 2005. 중,고,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홍은실. 2006.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73-92.
- Grable, J.E. and Joo, S.H. 2001. A Subsequent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worth and Financial Beliefs,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ustomer Sciences*. 93(5): 25-30.
- Piron, F. 1991. Defining Impulse Purchas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509-514.

ABSTRACT

Effect of Savings Rate by Adolescent Consumption Habit and Business/Economic Education*

Lee, Ji-Hye** · Kim, Pan-Soo***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planne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adolescen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saving rates of some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at there might be differences of saving rate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 education of consumption habits will influence on their saving rates.

As the result, we can found that the saving rat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habit patterns.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re were different saving rates according to the education on consumption habit. Those who took part in the education showed the higher rates of saving.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education on consumption habit gave influences on the saving rates.

Therefore, the education of consumption habit on the adolescent is necessary in order that they keep planned consumption habit, because their consumption habit. could give influences even up to their adult lives.

Keywords : Adolescent, Consumption Patterns, Planned Consumption, Consumption Educ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und, 2012

** Graduate Student, School of Busine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